30년 소리 인생, '길'이 되다

장사익, 소리판 '길' 공연 개최
10월 27일, 12월 2일 두 차례
세종문화회관 · 대전 예술의전당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996년 11월 24일, 데뷔 2년차인 장사익〈사진〉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처음 섰다. 무명에 가까웠던 가수가 대극장을 채웠다. 그날의 소리판 주제는 '하늘 가는 길'이었다. 그 뒤 장사익은 새로운 소리판을 만들 때마다 세종문화회관으로 돌아왔다.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오랜 세월 관객과 약속을 이어왔다. 그리고 2026년 10월 27일 오후 7시 30분 그가 다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선다.

올해 장사익 소리판의 제목은 '길'이다. 이번 소리판은 김준태 시인의 시 '길'에서 출발한다. 사람 속에서 길을 잃고, 다시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가 마침내 우리가 저마다 달고 다니는 몸이 곧 길임을 깨닫는 시다.

장사익의 삶도 그랬다. 그는 자신의 길을 찾기까지 오래 걸렸다.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방황하다가 남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에 비로소 노래 앞에 섰다. 노래의 길을 걸은 지 30여 년. 장사익이 다시 '길'이라는 제목을 꺼내 든 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는 길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장사익에게 헤맨 만큼 길이 생겼고, 돌아간 만큼 노래가 깊어졌다. 젊은 날의 장사익에게는 "이게 아닌데"라는 물음이 있었다면, 지금의 장사익은 김준태의 '길'에서 새로운 말을 만난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길이 어디 먼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몸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실제 장사익의 노래에는 처음부터 길을 찾는 사람의 마음이 있었다. '여행'에는 떠나는 사람의 길이 있었고, '이게 아닌데'에는 지금 서 있는 곳이 자신의 자리가 맞는지 되묻는 사람의 망설임이 있었다. 장사익의 노래 속 사람들은 좀처럼 반듯한 대로를 걷지 않는다. 헤매고, 돌아가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난다.

이번 공연은 장사익의 소리 인생 30년을 반추하는 자리로 구성된다. 그렇기에 출연진의 면면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음악감독이자 기타리스트 정재열을 비롯해 베이스 정영준, 피아노 앤디킴, 드럼 박현민, 색소폰 장호진, 한국 재즈 1세대 최선배의 트럼펫과 하모니카, 하고운의 해금, 고석용·신승균·최영호의 타악이 함께한다. 여기에 아카펠라 더 솔리스트(The Soilists)와 우니꼬합창단이 더해진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여 년 동안 장사익과 호흡을 맞춰온 음악적 동료들이다.

공연을 기획한 행복을뿌리는판은 "한 사람이 같은 대극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소리판을 30년 동안 이어왔다는 것은 한국 공연계에서도 보기 드문 기록"이라며 "슬픔을 신명으로, 상처를 위로로 바꾸고 개인의 기억을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하는 장사익의 음악세계를 이번 공연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사익의 공연 소리판 '길'은 12월 2일 오후 7시 30분 대전 예술의전당에서도 만날 수 있다.

17세기 경상권 사찰 대웅전 보물된다

국가유산청, 운흥사 · 거동사 대웅전 지정 예고

17세기 조성된 경상권 사찰의 대웅전 2건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경남 고성 운흥사 대웅전과 경북 영천 거동사 대웅전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고성 운흥사 대웅전.

신라 문무왕 16년(676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고성 운흥사는 임진왜란 당시 사명 대사가 이끄는 승병의 본거지로, 전투 중에 사찰이 전소됐고 이후 재건 과정에서 대웅전이 건립됐다. '고성 운흥사 대웅전'은 〈와룡산운흥사동구신건법당기〉 등의 문헌 기록을 통해 1682년 건립됐음을 알 수 있고, 대웅전 불단 하대목(下大木) 묵서와 대웅전 기와(망와)를 통해 중수 연혁을 추정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운흥사 대웅전은 정면 5칸의 맞배지붕 불전으로는 경상남도 내에서 유일하다"면서 "아울러 17~18세기 중수·중건 당시의 단청이 잘 보존되어 있어 시기별 단청 형식의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예술적 가치도 높다"고 평가했다.

영천 거동사는 신라 의상 대사가 건립한 것으로 전해지며, 근대기에는 산남의진(山南義陣) 제4차 결성지로 독립운동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찰이다. '영천 거동사 대웅전'은 건립 기록은 없으나, 건물의 양식과 목재연륜연대 및 방사성탄소연대 분석 등을 통해 17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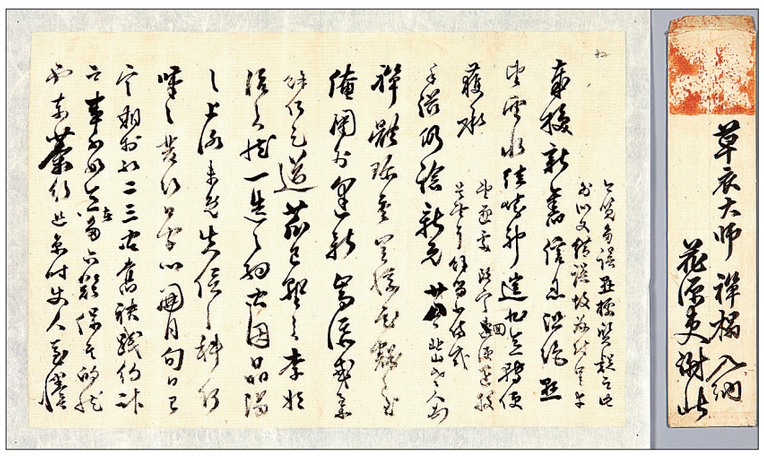
국가유산청은 "거동사 대웅전은 구조적 안전성을 위한 뜬창방과 홍예초방 같은 부재를 사용해 측면 벽체를 구성하는 등 고식(古式) 기법을 잘 계승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면서 "대량 머리초 문양과 채색 등 내부 단청에서 경상도 지역 사찰 주불전의 양식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 예술적 가치도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고성 운흥사 대웅전'과 '영천 거동사 대웅전'에 대해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동다송' 원래 '동다행'…초의 선사 간찰 번역 '결실'

국립광주박물관 간찰 번역집 발간
박동춘 기증 간찰 86건 155점 완료
유학자, 승려, 관리 등 관계 확인



국립광주박물관이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이 기증한 초의 선사 관련 자료 중 86건 155점의 간찰을 번역 · 정리해 책으로 펴냈다. 이 중 변지화가 초의 선사에게 보낸 간찰을 통해 '동다송'의 원래 명칭이 '동다행'이었음이 확인됐다.

초의 선사가 유학자, 지방 관리, 승려 등과 나누었던 간찰이 번역돼 책으로 묶였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흥선)은 "학술총서 〈박동춘 기증 초의선사 유묵 번역집 간찰편〉(이하 간찰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초의 선사(草衣禪師, 1786~1866)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선승(禪僧)이자 우리나라 차 문화를 정립한 인물로, '다성(茶聖)'으로도 불린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지난 2021년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으로부터 초의 선사와 관련된 유물 169건 364점을 기증받았다. 이후 기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고 학술적 가치를 밝히기 위해 2022년부터 유묵 번역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3년 시회(詩會)의 내용을 엮은 〈가련유사(嘉蓮遺事)〉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시와 산문을 수록한 〈시문편(詩文篇)〉을 발간했다. 이어 올해는 86건 155점의 간찰에 대한 번역·정리를 모두 마무리함으로써 초의 선사 유묵 번역사업의 중요한 결실을 맺게 됐다.

〈간찰편(簡札篇)〉은 상·하 두 권으로 구성됐다. 간찰은 개인 간에 주고받은 사적인 편지로, 당시 삶의 모습과 감정, 인간관계를 생생히 보여준다. 수록된 간찰은 초의 선사가 교유했던 유학자, 승려, 지방 관리 등과 주고받은 것으로, 스님의 교유 관계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초의 선사가 저술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다서(茶書) 〈동다송(東茶頌)〉의 원래 명칭이 〈동다행(東茶行)〉이었으며, 1837년 변지화(卞持和)의 부탁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했음이 변지화의 간찰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초의 선사가 스승으로 모셨던 정약용과의 인연이 손자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아들 정학유, 손자 정대무의 간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이번 〈간찰편〉 발간을 통해 초의 선사의 교유 관계와 사상, 문화적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증품들을 전시로 국민께 공개함으로써 기증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오늘의 소리'로 만나는 성덕대왕신종

'소리: 성덕대왕신종'
10월 31일~11월 1일
국립중앙博 극장 용서

국보 성덕대왕신종을 오늘의 소리로 풀어낸 공연이 열린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정용석, 이하 재단)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기획공연 '소리: 성덕대왕신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소리: 성덕대왕신종'은 성덕대왕신종을 둘러싼 세 가지 숫자를 모티프로 총 3부에 걸쳐 펼쳐진다. 신종의 조형적 비례를 상징하는 '√2', 깊고 낮은 울림을 보여주는 '64Hz', 신종이 완성된 해인 '771년'이 각각 종의 '탄생·울림·염원'을 상징하며 극의 서사를 이끈다.

성덕대왕신종이 하나의 거대한 형상으로 완성되기까지의 시간을 그리는 1부는 생황 연주자 한지수가 흙과 불, 쇠가 하나의 형상으로 완성돼 첫 울림에 이르는 과정을 생황의 호흡과 화음으로 표현한다. 2부는 양금 연주자 윤은화가 금속 현을 두드려 만들어내는 맑고 강렬한 음색으로 종의 표면에서 퍼져나가는 공명의 진동을 그려낸다.

3부는 신종이 완성된 771년에서 출발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으로 시선을 옮긴다. 이에 대한 공연은 전통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서도밴드가 맡았다.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은 "문화유산에 공연예술을 접목해 관객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이번 무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재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회주 호성
주지 두현
신도회 일동
봉황이 머무른 자리
영산암에서의 하룻밤
하루 템플스테이 특별 템플스테이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세계유산 봉정사
홈페이지 www.bongjeongsa.org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전화 054)853-4181, 4187 / 팩스 054)853-4185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재임을 축하드립니다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사성암
주지 우경
사부대중 일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문척면 사성암길 303 전화 061)781-4544